

## 행복청,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 국지도 96호선 등 주변 연계 교통체계에 대한 종합 검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6월 29일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지도 96호선은 행복도시 남서측에서 국가상징구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다. 현재 일부 구간은 노선 굴곡으로 인해 통행거리가 늘어나고, 문화재·하천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해 도로 구조 개선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으로 장래 교통수요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교통접근성을 높이고 도심 교통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통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용역은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며, 용역비는 257백만원, 용역기간은 2027년 6월까지다. 이번 용역에서는 국지도 96호선의 지하차도 신설, 지상교차 개선, 교량 설치, 현행 유지 등 다양한 대안을 비교·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통개선 효과와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도로 확장 등 주변 교통망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이날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수행 방향과 주요 검토사항을 공유하고 세종시와 LH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용역 과정에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행가능한 교통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형욱 차장은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행복도시의 장래 교통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국지도 96호선을 통한 국가상징구역 교통 접근성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수도에 걸맞은 교통체계 구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사업 개요

2.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대상 검토구간

3. 착수보고회 개최 사진

|       |                    |     |     |     |                |
|-------|--------------------|-----|-----|-----|----------------|
| 담당 부서 | 행복청 도시계획국<br>교통계획과 | 책임자 | 과 장 | 강병구 | (044-200-3280) |
|       |                    | 담당자 | 사무관 | 조계윤 | (044-200-32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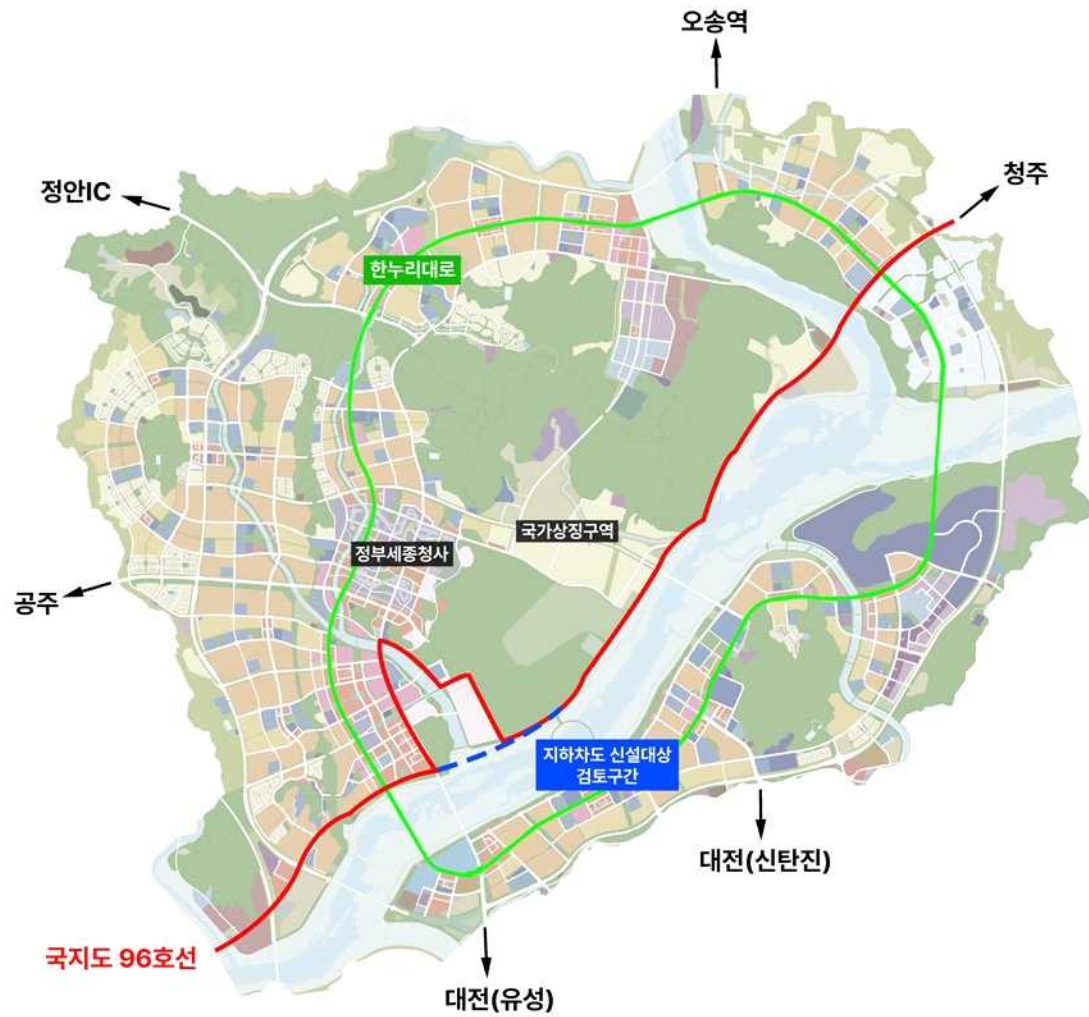


## □ 배 경

- 국지도96호선(충남 태안~충북 청주)은 세종시 가람동~한솔동~나성동~어진동~세종동 등 행복도시 중앙녹지공간을 관통
- 일부 구간(한솔동~박물관단지)이 시 지정 문화재\*로 인한 노선 굴곡으로 운행거리가 증가(약3.2km)하여 불필요한 시내 혼잡 초래
- \* 나성 독락정(문화유산자료 제8호), 나성동 석조여래입상(유형문화재 28호)

## □ 용역 개요

- (목적) 국회세종 의사당 접근성 개선 등 행정수도를 대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굴곡진 국지도 96호선을 선형 개선 필요
- 교통수요예측 분석, 기술적 문제·안정성·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각 대안별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방안 제시
- (용역명)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 (용역기간) '26.6 ~ '27.6(착수일로부터 365일)
- (용역금액) 25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 지출재원 : 국지도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일반연구비(1032-532-260-01)
- (계약방법) 경쟁입찰(적격심사)
- (과업내용) 교통현황분석 및 수요예측, 환경영향, 지하차도 규모·형식, 시·종점부 위치, 대안별 검토, 경제성·정책성 분석 등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참석자들이 과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